

제12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3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5회)

제12편
소사신앙촌시대 <제3부>
一. 밀실(密室)
1) 밀실의 시작
2) 밀실이란 곳

二. 밀실의 역할
1) 밀실은 잃었던 두 하나님인 아담과 헤와를 다시 찾아 승리하신 하나님으로 회복시키는데 성공을 거둔 귀한 곳이다.
2) 격암유록에서는 이곳에서 일남일녀를 키운다고 예언했다(密室)

三. 밀실에서 삼신일체(三神一體) 일인출(一人出)된 조희상님

一. 밀실(密室)

1) 밀실(密室)의 시작

지금 우리는 소사신앙촌 시대를 말하고 있는 중이다. 소사신앙촌의 역사는 박태선 영모님이 당신이 받은 사명을 차질없이 예정대로 진행시키고 있음을 알리는 절대적인 증거이다. 당시 우리들은 소사신앙촌이 다만 신앙인들의 신앙을 높이 끌어 올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건설된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열성적인 신앙인들을 신앙촌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신앙심을 키워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님을 받을 수 있는 144000의 왕의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알았다. 세 개의 울타리를 만들어, 첫째 울타리에서 둘째울타리로 또 둘째울타리에서 셋째울타리로 뽑아 들여보내면서 열심히 매달려 최고로 이루어지는 사람들로 키워서 주님을 맞이할 왕의 수를 채우게 하기 위함이라고들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첫째울타리인 소사신앙촌의 건설은 은비기에 언급된 삼진신중 일인출(三眞神中一人出) 즉 삼성일체 일인출(三聖一體一人出)을 이루기 위한 첫번째 성인이신 영모님이 출현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것이다. 이분이 첫째문이요, 첫째 천국인 것이다. 이분은 두 분의 성인을 출현시켜 한 분으로 합일된 완성자 구세주를 출현시키기 위한 사명을 받고 오신 분임을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둘째문 셋째문의 출현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영모님께서 어떤 식으로 두 분의 성인을 키워 세우시는지 그 내용을 직접 알아볼 시점이 되었다.

소사신앙촌 내 계수리에 광주 출신의 홍업비라는 여인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이 여인은 아래 위에 흰색의 한복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들 '천사마귀' 라고 부르면서 천대와 멸시를 가하였다. 그 여인의 집안에 각종 쓰레기와 연탄재를 쏟아 붓는 것은 보통이고 지나가는 홍업비 권사에서 "천사마귀년"이라고 조롱을 하곤 하였다. 소사신앙촌 내에서는 '천사마귀' 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영모님도 단에서 그 여인을 천사마귀라고 치시면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다.

결국 이 여인은 견딜 수가 없었던지



소래산과 노고산 사이에 위치한 1980년대 밀실

아니면 천기의 때가 되었는지 신앙촌에서 노구산 옆에 있는 야산(野山) 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닭을 키우면서 생활하다가 그것도 잘 되지 않아서 닭장을 집어치우고 굶다시피 하는 전봉국이라는 털보가 있었다. 홍업비 천사마귀는 이곳에서 간신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움막에서 기도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밥은 소사읍에 내려가서 얻어다가 끓여 먹는 정도로 연명하면서 기도생활을 하였다.

하루는 영모님이 신앙촌 내를 순시하시다가 신앙촌 자유시장에 불이 났을 때 타다 남은 목재를 쌓아 놓은 것이 있었는데 영모님은 그것을 보시고 건설부장에게 이것을 가져다가 천사마귀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지어

주라고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천사마귀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모님의 의중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천사마귀라고 상종도 하지말라고 치시면서도 천사마귀가 산속에서 비바람도 제대로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있음을 아시고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게 하신 것이다. 이 내용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영모님께서 천사마귀를 각별히 생각을 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는 아무도 그러한 영모님의 의중을 간파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뜻을 알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 홍업비 권사가 있는 곳으로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곳에는 하나의 열성적인 신앙인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기도원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

2) 밀실(密室)이란 곳

밀실은 구세주 출현의 산실(産室)이 된 곳이다.

470년 전에 남사고(南師古) 선생은 밀실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은거밀실생활계(隱居密室生活計)라고 표현하시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이다.

더욱이 남사고 선생은 이와 같은 밀실이 어느 곳에 세워질 것인지 그 위치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던 것이다.

天藏地秘吉星照(천장지비길성조) 桂樹鬱林是吉地(계수법박시길지) 蘇萊老姑兩山(소래노고양산) 相望稀座(상망희좌)....聖山尋路(성산심로)

"하늘이 감추고 땅이 숨긴 곳에서 길한 별이 밝게 비치는 길한 땅이 계

수와 범박동인데 이곳은 소래산과 노고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이는 양산 사이에 있는 아주 희귀한 곳에 있다."

밀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예언은 소사신앙촌의 위치를 예언해 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소래산과 노고산 양산 사이에 밀실이 있다. 더욱 자세한 예언을 기대하시는 독자가 있다면 다음의 '밀실의 역할'의 대목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구세주가 출현하시는 귀한 성지인 밀실이 바로 소래산과 노고산이 서로 마주 바라보이는 가운데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곳 밀실이란 명칭은 1957년에 소사신앙촌이 건설된 후에 밀실이 형성되었고 더욱이 밀실이라는 명칭은 그후 한참 후에야 알려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470여 년 전에 남사고선생은 이곳 밀실이란 명칭과 또 그 밀실이 위치한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주인공들이 이곳에서 출현하시는 매우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계셨던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18회

천지개벽 시에는 정도령(6도81궁)을 만나서
십승의 도를 닦아야 살 수 있다

未運論(五) 말운론
鄭堪豫言十處 正감예언십처
地理之上大吉地 지리지상대길지
十處以外小吉 십처이외소길
方方谷谷結定地 방방곡곡결정지
不入正穴者 불입정혈자사
有福之人 或希生 유복지인 희희생
穴下弓身 巽門 혈하궁신 손문
弓乙圖用必要矣 궁을도용필요의
天擇弓弓十勝地 천택궁궁십승지
利在弓弓十勝村 리재궁궁십승촌
不利山不近不離 불리산불근불침
天民十勝地 천민십승지
赤蓮蓮日火烟蔽月 적연연화연폐월
盜賊不入 도적불입
安心之地 出入生 안심지지 출사입생
自古豫言祕藏之文 자고예언비장지문
隱頭藏尾不覺書 은두장미불각서
自古十勝弓乙理 자고십승궁을리
由道下止從從金說 유도하지종종금설

출현하였다. 아직도 5도72궁에 연연해 있으면 궁을도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6도81궁 정도령을 찾으려면 궁을도 즉 하도낙서의 용법이 필요하리라. 손문(巽門)은 손진계룡의 손(동물로는 닭)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분=5도 72궁)이며 진(震)은 하나님이 완전히 좌정 하시니 6도81궁이며 동물로는 용이다.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하여 지상선국을 건설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6도81궁 속에 5도72궁과 중간에 여인 한 분(밀실에서 6도81궁을 연단시킨 분)이 함께 6도81궁의 마음속에 있으므로 삼신일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다.
참고로 육도삼략운행지도에 의하면 선천에는 복희씨가 1도36궁이요, 문왕이 2도45궁을 담당하였고, 후천은 수운수운 최제우가 3도54궁이며, 6X9=54에서 6은 수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수운이 될 수밖에 없고, 화운 강증산이 4도63궁으로 7X9=63에서 7은 화화를 의미한다. 그는 스스로를 남방 삼리화三離火라 한 바 있다.
그다음 중천은 목운木運(박태선朴泰善)이 5도72궁(8X9 8은 목木)이며 갑을가의 세인부지 정변박(世人不知鄭變朴)의 사람이다. 금운金運(조희성曹熙星)이 6도81궁(9X9 9는 금金을 말한다.)으로 해서 천지공사가 완성되어 죽을 없는 세상 즉 지상선국 건설을 이루어낸다.(세41장 이견기타파멸마 리見機打破滅魔 인생주수人生秋收 조미단풍구비糟米端風驅飛 조표풍지인

糟飄風之人 궁을십승弓乙十勝 이는 6도81궁 정도령의 성씨姓氏를 나타내고 있다.)
선천과 후천은 쇠병사장(衰病死葬) 아래에서의 삶이지만 중천 즉 목운 금운의 천지공사가 끝나면 쇠병사장(衰病死葬)이 퇴거(退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천지개벽의 핵심 비밀이다.
하늘이 궁궁 십승지를 택했으니 이로움은 궁궁 십승촌에 있느니라. 산에 있으면 불리하니 가까이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일이다. 하늘 백성이 십승지에 있으니 붉은 기운이 해를 가리고 불과 연기가 달을 가려도 도적이 들지 못하므로 안심할 곳이라. 정도령으로부터 살마광선(殺魔光線)인 감로해인을 받으므로 사망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함을 뜻한다.
십승촌을 나오면 죽을 것이요 들어 가면 살 것이니라. 예로부터 예언은 숨기고 감춘 글로서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추어 때가 이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게 한 글이니라. 자고로 십승은 궁을의 이치에서 나온 연유로 해서 십승의 도 아래에 그치라(머물라)고 했으며 십승의 도의 주인공인 육도삼략의 마지막 완성자이신 금운 정도령(6도 81궁)을 따라라고 말했던 것이니라.

雖訪道君子 怨無心 수방도군자 원무심
먹지 못할 것은 없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어떤 것은 먹어서 생명이 되고, 어떤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있느니라. 담배와 술을 좋아하는 자는 본심을 잃지 마라 모두 다 원통하게 죽으리라. 초조삼계(艸早三鷄)에서 초조艸早는 풀 초(草), 삼계三鷄는 술 주(酒)자를 의미한다. 주(酒)자는 물 수(水)자와 12지지의 유(酉)자로 되어 있고 유(酉)는 닭을 의미한다. 음양과(선약과, 마귀마음, 음욕)를 돼지같이 먹으면 비록 도를 찾는 군자라도 죽으리라.
利在田田十勝化 이재전전십승화
上帝豫言 眞經說 毫理不差 상제예언 진경설 호리불차
生命 一二三 松家上中下 松家道 생명 일이삼 송가전 상중하 송가도 奄阜曲阜 聖山地 엄부곡부 성산지

승의 도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를 말한 것이다.
십승 하나님인 계신 곳(성산지)에서 도를 닦아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느니라. 즉 정도령(6도81궁)을 만나서 십승의 도를 닦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悲哉悲運何日時 비재비운하일시
靑槐滿庭之日 淸과만정지월
白楊無芽之日 백양무아지일
此時變運之世 차시변운지세
柿獨出世 시독출세
人心即天心 規於十勝 인심즉천심규어십승

슬프도다! 비운(悲運)은 어느 날 어느 때인가? 푸른 회화나무가 뜰에 가득한 달이요, 흰 버드나무가 싹이 없는 날이다(음력 선달 스무날). 이때는 천지개벽의 급변하는 운세인지라 오직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구세주 하나님을 모신 감(감)나무(6도 81궁 정도령) 한 분이 홀로 출세하시나니라. 인심이 천심이니 오직 십승을 찾아 도를 닦아야 하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